

전주비전대 이요엘씨, 교육부장관상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총무처 이요엘 직원이 최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요엘 직원(만 33세)은 대학정보공시 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매년 정보공시 업무 수행에 노력하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해 대학 정보공시 유공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요엘 직원은 "앞으로도 대학 정보공시와 관련된 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학생을 비롯한 대학정보공시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요엘씨는 건국대 경영학파를 졸업하고, 유봉관련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2017년부터 전주비전대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은성 기자



예수병원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예수병원은 전공의 협의회에서 준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PMCS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으며 라는 편지와 선물을 준비해 이웃사랑을 지난 26일 실천했다. 송원민 협의회장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수고를 먼저 선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전공의들이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예수병원은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웃사랑-이음을 실천하는 릴레이를 통해 따뜻한 나눔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장수소방서, 산골 화재취약마을 안전물품 기증행사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26일 산골 화재취약마을의 안전지대 구축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무주 양수발전소에서 주민 맞춤형 안전물품 기증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형 중 산림지대가 82%를 차지하는 무주군의 지형 특성상 소방관서와 거리가 먼 산골마을은 화재 발생 시 현장 도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장수소방서에서는 2022-2023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3일 한국수력원자력 무주 양수발전소에서 구급함 43개와 농기계용 소화기 215개 등 주민 맞춤형 안전물품을 후원받아 26일부터 무주1192전선센터에서 소방관서와 거리가 먼 무주군 적산면 43개 마을 및 취약가구에 배부 및 설치를 추진한다. 소재실 장수소방서장은 "이번 안전물품 배부 및 설치로 소방관서와의 원거리 산골마을이 보다 더 안전해지고 재난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어업계연합회, 장학재단에 장학금 전달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26일 진안군어업계연합회(회장 안기두)에서 방문해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용담호를 기반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진안군어업계연합회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안기두 회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전춘성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관심과 후원에 감사하다"며 "많은 군민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 진안군의 훌륭한 인재 양성에 사용하고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건협,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사회복지협, 3년 연속 공로 인정... 전국 16개 시도지부 동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심사는 환경경영, 사회공헌프로그램, 윤리경영 등 ESG경영 관련 7개 분야 26개 지표를 통해 진행. 특히 올해는 건협 지부의 사회공헌활동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건협 본부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인정기관으로 동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건협은 '건강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사회공헌 비전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차량 제작·지원, 시설거주아동 학습 지원, 확대폐해아동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불복공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한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캠페인, 하천정화를 위한 EM흙공 던지기 캠페인, 플로깅 환경정화활동 등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ESG경영에 입각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윤지홍·김정현 남원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과 김정현 의원이 26일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도내 기초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지홍 의원은 4선 시의원으로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참패되어 가는 농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발굴, 구도심 활성화 방안 제시,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주민편의사업 추진 확대, 취약 의료보전 계층 확대 등 시민우주의 행정 운영이 가능토록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정현 의원은 재선 시의원으로 본인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난립하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기에 제동을 걸었고 수차례에 걸쳐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친환경전기열차 사업성 제고 등의 시정질문을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남원농업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조직하여 정책연구운역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을 주도하는 등 활발한 원내 활동을 주도하며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은 "의민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당연한 일에 이렇게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실공단, 여가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전주시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한다.

공단은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성보호시간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자녀에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수요일과 금요일에 정시 퇴근을 독려하는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2014년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재인증을 받아왔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구대식 이사장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며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진안 성수면 손태주씨,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진안군 성수면(면장 최용주)은 26일 안평마을 손태주 씨가 연말을 맞이해 불우이웃을 위해 쌀달라미 성금 100만원을 성수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손태주 씨는 1983년부터 성수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40여년간 성수지역에서 운행한 만큼 지역주민들의 친근한 기사로 소문나 있다.

특히 행복택시로 활동하면서부터는 더욱 주민들과 가까워져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특성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짐이 많은 분들을 위해 부추도 하고 쌀이며 농산물을 대신 들어다 주는 등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회 전북리더쉽대상·우리말 표현하기 전국대회 성료

전북리더쉽연구원 주최하고 한국스피치음향학회 전북본부가 주관하는 '제1회 전북리더쉽대상·우리말 표현하기 전국대회'가 지난 24일 베스트웨스턴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전북의 리더자들을 발굴하고 시상해 사회공헌에 치하하고 우리말표현하기대회를 통해 고품격의 말로 아름다운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김기수 전북리더쉽연구원장, 김양욱 한국스피치음향학회 전북본부 회장, 양해석·임승식 전북도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번 리더쉽대상에 합경식 대우산업개발대표가 전북리더쉽대상을 수상받았다.

지방자치부문에 임승식·양해석 도의원, 농업활성화부문에 이정용 김제농협조합장이 수상을 받게 됐다.

이어 공무원부문에 김봉근(군산시청), 방송부문에 함운호(KBS전주방송), 예술부문 리영식(가수)씨가 수상을 받았으며, 농촌활성화부문에 김만기 칠보농협 감사, 산업부문에 신정숙(주)부창푸드 대표, 신희부문에 임문옥 덕진신희이



시장 사회리더쉽부문에 유자(회사원)씨가 수상받았다. 함께 진행된 우리말 표현하기 입상자로 권민자·김성동씨가 대상을 수상받았으며, 서강원·신지웅·안광식씨가 특상을 수상받았다. /김재훈 기자

사회가치네트워크, 정읍시에 청년발전기금 2100만원 전달

전북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ESG 실무자 협의체인 전북사회가치네트워크가 26일 정읍시에 청년발전기금 2100만원을 전달했다.

기탁금은 정읍의 청년 창업가를 위해 소속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각 700만 원씩 모아 마련했다.

기탁된 후원금은 정읍시 청년발전기금을 통해 내년도 SK 넥실티스와 함께하는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등 지역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간사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장호 차장은 "전북지역 청년 창업가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정읍시가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이 역량을 갖춰 실제 창업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화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지역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



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구소멸과 청년 유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큰 귀감이 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청년창업 협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협, 관내 아동들에 성탄절 선물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하 협의회)와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23일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동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 내 6개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미리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년처럼 어린이를 대면해 직접 건네지 않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일괄 건네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로 선물을 전달받은 어린이집 관계자는 "해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손효연 인삼발전연구회장, 이웃돕기 100만원 성금

전북인삼발전연구회 손효연 회장은 26일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을 위해 쌀달라미 미령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손효연 회장은 2019년을 시작으로 4년째 선정을 이어 오고 있어 추워진 연말에 훈훈함을 더했다.

손효연 회장은 20년 이상 영농을 하며 인삼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국 최초 환경조건 하우스 운영, 친환경 묘삼 재배 등 차별화된 기술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농진청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인삼) 명인에도 선정됐다.

손효연 회장은 "추운 겨울철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인사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전보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이종희 기획조정관 ▲안영순 국립무형유산원장

원주군청 ◇4급 승진 ▲용진을 정희정 ◇5급 승진 ▲기획감사실 심미정 ▲행정지원과 박정수 ▲력거리정책과 홍성희 ▲도로교통과 홍성삼 ▲사회복지과 이상윤 ▲교육이동복지과 임미정 ▲환경과 임동환 ▲농업축산과 유정기 ▲도시개발과 김경환 ▲기술보급과 유영기